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과 진화론 인식

이 만 영*

요약

본 논문은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에서 진화론이 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양상을 논의하였다. 계급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와 생존경쟁을 강조하는 진화론은 일견 양립되기 어려운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비평 담론에서 진화론은 중요한 참조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단순히 진화론을 참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과 갱신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처럼 초기 사회주의 비평 담론에서 진화론은 참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었다.

이 관점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강조했던 진화론의 관점을 쇠신하기 위해 ‘혁명’ 개념을 사회 변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 브리스(Hugo de Vries)의 ‘돌연변이’와 같은 자연과학적 개념과 헤겔 철학이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둘째,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약자’ 혹은 ‘낙오자’로 자기를 지칭해왔던 1910년대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저항적 생명력을 보유한 주체를 새롭게 주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생명’과 ‘총동’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혁명이 창조적이면서 우발적인 의지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셋째,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1910년대에 제출되었던 ‘동정’ 개념을 새롭게 각색하고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이라는 진화의 핵심 논리가 갖는 윤리적 결함을 지적하고,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생존과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제어: 진화론, 사회주의, 다윈, 마르크스, 혁명, 노동, 크로포트킨, 상호부조, 진보

목차

1. 들어가기 - 마르크스와 다윈
2. '새 템포'의 기록, 진화에서 혁명으로
3. 생명과 충동, 혁명적 주체의 재정립
4. 상호부조의 논리와 윤리적 진화의 길
5. 나가기

“우리의 견해에 관한 자연과학적·역사학적 기초가
바로 이 책에 들어 있다네.”
칼 마르크스

1. 들어가기 - 마르크스와 다윈

1859년 11월 24일에 발간된 『종의 기원』 초판은 발매 직후 매진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엥겔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마르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다윈은 정말 훌륭하군. (...) 자연의 역사적 진화를 증명하려 한 작업 중에서 이렇게 웅대하고, 또 확실히 이만큼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는 지금껏 없었어.”¹⁾ 맨체스터에 머물던 1850~1870년 동안

1)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서신 자료는 Marx Engels Archive에서 확인하였다. 정확한 출처는 https://marxists.catbull.com/archive/marx/works/1859/letters/59_12_11.htm이며, 인용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arwin, by the way, whom I'm reading just now, is absolutely splendid. …… Never before has so grandiose an attempt been made to demonstrate historical evolution in Nature, and certainly never to such good effect.”(Engels to Marx, 11 December 1859) 본고에서 활용하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서신은 Marx Engels Archive(<https://marxists.catbull.com/archive/>)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과 진화이론가 T.H. 헉슬리의 저작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화학 관련 저작을 섭렵했던 엔겔스로서는 『종의 기원』의 학문적 파급력을 익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테지만,²⁾ 실제 그 편지를 받은 직후 마르크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엔겔스의 편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르크스는 『종의 기원』을 읽고 엔겔스에게 “우리의 견해에 관한 자연과학적·역사학적 기초가 바로 이 책에 들어 있다네.”³⁾라는 찬평을 남긴다. 뒤이어 라살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윈의 저작이 대단히 중요하며 역사적 계급투쟁에 관한 자연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의 취지에 들어맞아.”라는 감회를 밝힐 만큼,⁴⁾ 마르크스는 다윈의 저작에 점차 매료되고 있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서신 내용을 통해 사회주의 이론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이 적지 않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마르크스는 엔겔스에게 다윈의 저작을 재차 탐독하면서 ‘뉘스’ 이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니와,⁵⁾ 심지어 자신의 대작 『자본론』 1권(1873년 2판)을 다윈에게 보낼 정도로 그 학문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⁶⁾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종의 기원』의 입론과 사회주의 이론이 조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종의 기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에 반해, 다윈은 이들의 저작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다윈의 서재에 꽂혀 있다는 『자본론』 1권은 104페이지까지만 읽

marx/index.htm)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되, 이후부터는 인용 원문과 링크 주소 등은 생략하고 발신인, 수신인, 작성 날짜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2) 엔겔스의 ‘맨체스터 시기’에 관한 언급은 트리스트럼 헛트, 이광일 역, 『엔겔스 평전』, 글항아리, 2010, 463면을 참조.

3) Sam Marcy, 나승연 역, 『맑스, 다윈 그리고 생물학의 대격변』, 『정세와노동』 47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9, 72면에서 재인용.

4) Marx to Lassalle, 16 January 1861.

5) Marx to Engels, 18 June 1862.

6) 프랜시스 윈, 정영목 역, 『마르크스 평전』, 2001, 498면.

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⁷⁾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신의 글에서 다윈을 지속적으로 호명했던 것에 반해 다윈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극히 자제해왔다. 물론 다윈이 귀족 출신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될 테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을 강조했던 다윈에게는 계급적 연대와 약자 공생의 논리를 내세웠던 사회주의 이론에 동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와 다윈의 진화론이 양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왜 『종의 기원』에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자연과학적 기초’가 숨어 있다고 말할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엥겔스의 『자연의 변증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다윈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자연관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기술한 바 있다.

“새로운 자연관의 기본 개요가 완성되었다: 굳어져 있던 모든 것이 해체되었고, 고정되어 있던 모든 것이 흘러져 사라졌고, 영원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모든 개별적인 것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자연 전체는 영원한 흐름과 순환 속에서 스스로 운동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⁸⁾

엥겔스가 주목했던 것은, 다윈의 등장으로 인해 초자연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및 유기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존의 자연철학은 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이 본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앙 속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윈 이후부터는 더 이상 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엥겔스는 이러한 자연관의 변화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했다고 믿었다⁹⁾ 다

7) 일로나 예르거, 오지원 역, 『두 사람: 마르크스와 다윈의 저녁식사』, 갈라파고스, 2018, 354면.

8) 프리드리히 엥겔스, 『자연의 변증법』,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5』, 박종철출판사, 1991, 368-369면.

9) 참고로 엥겔스는 같은 글에서 다윈이 가진 맹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과잉 노동과 대중의 증가하는 빈곤과 십 년마다의 대파산, 경제학자들이 최고의 역사적 성과

원을 통해 신이라는 초월적 준거 없이 자연이 합목적적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자연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가 내부적인 동인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유입되었던 20세기 초의 동아시아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정식화할 수 있다는 일련의 믿음은 동아시아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경우 “우리 사회주의자들도 기꺼이 다윈주의의 신도임을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윈이 생물과 자연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독창적 견해를 곧바로 인류 사회에 적용한 것은 근대 사회주의의 스승 마르크스다.”라고 단언한 바 있고,¹⁰⁾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또한 오카 아사지로(岡淺次郎)의 『진화론강화』를 여러 차례 애독했다고 술회하면서 “진화론이 그때까지 내 마음 속에 커다란 권위로 자리하던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 대해 변혁을 외치게 했으며, 사회주의의 주장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¹¹⁾라고 말하였다. 또한 오스기와 마찬가지로 『진화론강화』에 매료되었던 기타 잇키(北一輝)도 진화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논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¹²⁾ 『천연론』을 통해 동아시아권에서 선구적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중국의 경우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천두슈는 “근대문명의 특징은, 옛것

라고 찬미하는 자유 경쟁, 즉 생존을 위한 투쟁이 동물계의 정상 상태임을 다윈이 증명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그리고 특히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랄한 풍자문을 썼는지 알지 못하였다.(7위의 책, 373면) 이러한 엥겔스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다윈이 참조했다고 알려진 뉘른베르크의 ‘생존경쟁’ 이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엥겔스는 다윈을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열어젖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10) 고토쿠 슈스이. 『人類と生存競争 社會主義は生物進化説と矛盾する乎』, 『平民新聞』 12, 1904.1.31; 번역은 고토쿠 슈스이, 임경화 편역, 『인류와 생존경쟁』, 『나는 사회주의자다』, 교양인, 2011, 484면에 따름.

11) 오스기 사카에, 김응교·윤영수 역, 『오스기 사카에 자서전』, 실천문화사, 2005, 201면.

12) 마쓰모토 겐이치, 정선태·오석철 역, 『기타 잇키』, 교양인, 2010, 321면.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확연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인권론, 생물진화론, 사회주의가 그것이다.”¹³⁾라고 말하였고, 마오쩌둥은 『종의 기원』을 젊은 시절 깊은 인상을 남긴 서양 서적 중 유일한 자연과학서로 꼽고 있었다.¹⁴⁾ 이렇듯 일본과 중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축점으로 삼아 자신의 이론을 정식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참조하면서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관점을 새롭게 고안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의미의 진화를 강조하는 인식으로는 혁명이라는 역사적 결절점을 사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이라는 다윈식의 논법은 연대와 협동의 가능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엥겔스가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다.

“나는 다윈의 학설에서 발전 이론은 받아들이지만, 다윈의 증명방법(생존을 위한 투쟁, 자연 선택)은 새로이 발견된 사실의 최초의, 잠정적인, 불완전한 표현으로서만 취합니다. (...) 자연물의 상호 작용은 조화와 충돌, 그리고 투쟁과 협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연탐구자입네 하는 사람이 역사적 발전의 다면적인 풍부함 전체를 감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일면적이고 빈약한 문구, 자연의 영역에서조차 적당히 참작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 아래 포섭한다면, 이러한 처신은 이미 그 자체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¹⁵⁾

13) 천두슈, 심혜영 역, 『천두슈 사상선집』, 산지니, 2017, 65-66면.

14) 궁위즈 외, 조경희 역, 『마오의 독서생활』, 글항아리, 2011, 255면.

15) 프리드리히 엥겔스, 『엥겔스가 런던의 뵘뜨르 라브로비치 라브로프에게』,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5, 464-465면. 이 외에도 엥겔스는 『자연의 변증법』에서 다윈이 가진 맹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과잉 노동과 대중의 증가하는 빈곤과 십 년마다의 대파산, 경제학자들이 최고의 역사적 성과라고 찬미하는 자유 경쟁, 즉 생존을 위한 투쟁이 동물계의 정상 상태를 다윈이 증명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그리고 특히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랄한 풍자문을 썼는지 알지 못하였다.”(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윈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생존경쟁의 논리를 발견해 냈는데, 엥겔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논리는 약자의 도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다. 따라서 다윈이 말한 생존경쟁이라는 문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엥겔스는 생존경쟁만을 강조한 다윈이 역사적 발전의 다면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연이 ‘조화-충돌, 투쟁-협동’의 변증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생존경쟁을 통한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을 통해 혁명적 변혁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었다.

상기한 대로 엥겔스는 다윈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 다시 말해 진화론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입장을 동시에 견지하였다. 이러한 엥겔스의 입장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공유되었을까. 1910년대에 러시아혁명과 3·1운동이라는 국내외적 사건을 경험하고 진화론에 입각한 자강의 논리가 점차 담론적 효력을 상실해가던 1920년대 초,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화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참조·비판했던 지적 궤적을 살펴보고 그들이 설정했던 ‘진보’의 방법과 지향점이 어떠한지를 검토할 것이다.¹⁶⁾ 이를 위

리드리히 엥겔스, 『자연의 변증법』, 앞의 책, 373면) 이렇듯 엥겔스는 다윈이 참조했다고 알려진 멜서스의 ‘생존경쟁’ 이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16)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활용하는 진화론의 의미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 진화생물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에 따르면 다윈 진화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진화는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진화=변화】
- ② 진화는 적합성이 낮은 개체들이 개체군에서 제거된다는 자연선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선택】
- ③ 진화는 불연속적이거나 도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화의 점진성】
- ④ 진화는 특정 개체군의 종 분화를 야기한다. 【종의 증가】

해 초기 사회주의 비평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생활』, 『공제』, 『아성』을 주요 텍스트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⁷⁾

2. ‘새 템포’의 기록, 진화에서 혁명으로

카프가 이미 해체되고 파시즘이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임화는 역사철학적 사유가 농후하게 드러난 글 한 편을 제출한다 『역사·문화·문학 - 혹은 시대성이란 것의 일각서』(1939.2.18.~3.3.)가 바로 그것인데, 그는 이 글에서 ‘사회사적 시간이 ‘자연사적 시간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사회사적 시간이란 자연사적 시간을 인간의 힘으로 깨트린 결과로 수립된 새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사적 시간을 정복하고 지배한 위에 세워진 시간! 그러므로 진화론으로 사회사를 계량할 수 없는 것이다

⑤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한다. 【공통 유래】

이만영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①~③의 내용을 진화론의 핵심 논점으로 받아들였다. ④와 ⑤는 식민지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반면, ①~③은 식민지라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당대 지식인들은 주로 ①~③의 내용을 다윈 진화론의 핵심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1910~20년대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8, 19-21면을 참조.

- 17)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제』를 발간하는 조선노동공제회나 『아성』을 발간하는 조선청년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은 오상근, 박이규 등과 같은 우파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도 두루 참여하였다. 따라서 해당 잡지에 기고한 사람들을 모두 ‘초기 사회주의자라고 명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고에서 인용한 글의 필자들, 즉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편, 창작과비평사, 1996)을 참조하여 선별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1920년대 초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노동운동 가담은 이경룡, 『192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분화과정 - 조선노동공제회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8, 한국중앙사학회, 1995, 107-119면을 참조.

(...) 결국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자연사적 시간의 템포를 깨트리고 수립된 새 템포의 기록이 쉽게 말한 사회사적 시간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 글에 따르면 ‘사회사적 시간은 진화론적 사유를 근간으로 운산(運算)되는 ‘자연사적 시간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적·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새롭게 수립된 시간이자, 수천수만 년의 시간 동안 점진적·자연적으로 진화해간다는 다윈식 사유로는 결코 포착될 수 없는 시간이다. 임화가 같은 글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계지도가 일변하는 것은 지혜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새 템포의 기록’이란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시간관만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역사,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급진적이고 돌발적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통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진적이고 자연적인 변화의 시간을 절단하는 급진적 모험의 시간, 오늘날 우리는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다.

임화가 말했던 ‘사회사적 시간은 기존의 진화론적 문법으로 해석될 수 없었던 혁명 개념을 사유하게 한다. 하지만 임화가 견지한 역사철학적 관점은, 진화와 혁명을 양립될 수 없는 개념어로 취급했던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혁명은 진화의 道와 表裡를 相成해야 결코 양립치는 못흐느니”¹⁹⁾라는 말이나 “급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요, 후퇴치만 아니하면 점진은 조호니라, (...) 우리는 비스듬히 기우러진 진보를 바라노라. 점진은 神의 奎政略이라.”²⁰⁾라는 말은 진화를 점진적인 변화로 이해했던 당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18) 임화, 『歷史·文化·文學 - 惑은 時代性이란 것의 一覺書(二)』, 『동아일보』, 1939.2.19; 임화 문학예술전집 편집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문학의 논리』, 2009, 578면.

19) 安國善, 『政府의 性質(續)』, 『대한협회회보』, 12호, 1909.3, 22면.

20) 『ABC契』, 『소년』 19호, 1910.7, 60면.

그러나 러시아 혁명과 3·1운동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진화에 대한 개념적 교정이 본격화된다.²¹⁾ “露西亞는 과거의 문화권 내에서 뒤지었던 위치를 초탈하고 신문화권 내에서 急先鋒이 되어 표연히 압서게 된 것이외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역사적 진화로만 관찰하면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이외다.”²²⁾라는 김명식의 언급처럼, 러시아 혁명은 기존의 진화론적 사유로는 해석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진화 개념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혁명은 사실상 진화의 문맥 속에서 검출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과 3·1운동을 목도한 바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투쟁의 당위성과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혁명을 새로운 사회변화의 방법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었다

1910년대가 진화론의 시대였던 만큼,²³⁾ 혁명이라는 이질적인 개념어가 새롭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적 자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급격하게 양적 팽창을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마르크스주의 원전도 10종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²⁴⁾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될 필요가 있는 헤겔에 대해서도 거의 소개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²⁵⁾ 물론 당시 이론가들의 독서체험이 일본어 서적을 통해

21)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과 진화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만영, 앞의 논문, 113-118면을 참조.

22) 金明植, 『露西亞의 산文學』, 『신생활』 3호, 1922.4, 5면.

23)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24) 이 당시 번역된 마르크스주의 원전은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고타강령 초안 비판』, 『맑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서신』, 『칼 맑스』 등 총 8종에 불과했다. 이 내용은 박종린,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 현실』 67, 한국역사연구회, 2008, 92면을 참조.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조선 사회 내에서 민족 해방이나 계급모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역량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신생활』의 필진 이성태는 ‘진화’와 ‘혁명’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글 한 편을 제출한다.

“무릇 進化라는 것은 一般人의 主張하는 바와 가치 徐々하게 또 均等한 速度로 되는 것이 아니외다. 進化와 革命은 서로서로 뒤를 이어 일어 납니다. (...) 크로포트킨은 革命도 自然界의 또는 人類社會現象의 다른 徐々한 모든 進化와 가치 한 普遍的 原則이라 말하엿습니다. 그래서 크로포트킨은 人類社會에서도 進化는 革命업시 成就하지 못한다 말하엿습니다.”²⁶⁾

위에서 지적하고 있듯 일반적으로 진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왔다. 이는 다윈이 제시했던 많은 자연과학적 관찰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었던 바, 다윈의 관점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증할 만한 관찰 결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태가 크로포트킨의 이론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크로포트킨은 개미와 벌과 같이 군집생활을 영위해온 곤충이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윈 진화론을 논파할 만한 다양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크로포트킨이 새로운 진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상호부조’는 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글에서 이성태가 주목했던 것은 진화가 혁명 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크로포트킨의 진술이었다. 그에 따르면 혁명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사

25) 필자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문헌은 최하운의 『헤겔 철학과 데이켄』(『개벽』 68호, 1926,4)이다. 이 글은 J. Dietzgen의 글을 번역한 것으로, 헤겔 철학의 핵심인 모순을 통한 자기전개과정뿐만 아니라 헤겔 철학이 마르크스의 사상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26) 李星泰, 『크로포트킨學說研究』, 『신생활』 7호, 1922,7, 34-35면.

회계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듯 이성태는 크로포트킨의 입을 빌어 사회 변화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혁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革命은 進化의 道와 表裡를 相成호야 決코 兩立치는 못 호느니”라는 안국선의 인식이 통용되었던 시대에서 “進化는 革命업시 成就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통용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⁷⁾

이와 같이 이성태는 크로포트킨의 혁명관을 토대로 진화가 단순히 점진적인 속도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이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진화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미와 벌의 실증적 사례를 들어 논증되었던 상호부조론과는 다르게, 크로포트킨의 혁명론은 자연과학적 사실로부터 도출된 관점은 아니었다. 이미 1917년 러시아혁명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이 ‘혁명’의 실현 가능성을 웅변해주고 있긴 했지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예외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드브리스(Hugo de Vries)의 ‘돌연변이’ 이론이었다.

“도푸리스說에 의하면 진화란 것은 반다시 그러케 徐徐緩緩한 변화만은 안이다. 옛던 때에는 급격한 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어느 종류의 花草와 가티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갑작히 빗치 변하며 모양이 변하여 새로운 종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빨조아進化論의 徐徐緩

27) 혁명과 진화를 동시에 사유하려는 인식은 『공제』의 필진이자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던 김한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김상옥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한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사람은 고정체(固定體)가 아니오 류동체(流動體)이라. 따라서 점점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사라가는 원리라. 이것은 ‘해켈(헤켈: 인용자 주)이나 ‘싸-윈이 임이 말하였스즉 자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조선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 살기를 위하여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할 것은 그 역 당연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향상하고 진화하는 데는 혁명(革命)이라는 것이 있나니” - 『自殺, 制令違反』, 『동아일보』, 1923.5.19

緩說에 대하여 突變說 혹은 激變說이라고云할 만한 新學說이 생긴 것입니다. 도프라스는 정치라든가 사회와는 관계가 업시 다만 순수한 생물학상의 연구를 발표한 터이지만은 일반사회에서는 과연 옳은 것으로 환영을 바덧습니다.”²⁸⁾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 드 브리스를 소개한 최초 문헌이다.²⁹⁾ 네덜란드의 생물학자인 드 브리스는 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윈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진화는 ‘돌연변이’와 같이 불연속적이거나 도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³⁰⁾ 사카이는 이 글에서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 이론을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혁명 개념과 조응하는지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다윈은 라마르크의 유전법칙³¹⁾에 따라 유기체의 진화가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물학적 의미의 진화는 불연속적이거나 도약적인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사카이는 이러한 관점을 ‘부르주아 진화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드 브리스의 등장으로 인해 비로소 ‘돌발’과 ‘격변’으로 설명되는 진화론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 개념은 혁명

28) 사카이 도시히코, 『社會主義 學說 大要』, 『개벽』 40호, 1923.10, 78면.

29) 식민지 조선에서 ‘돌연변이’ 개념이 최초로 언급된 글은 『選種은 農家의 大要件』(『매일신보』, 1916.10.20.)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돌연변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드 브리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돌연변이’ 개념을 ‘혁명’ 개념과 접목해서 설명한 최초의 글은 사카이의 『社會主義 學說 大要』이다.

30) 드 브리스는 『Die Mutations theorie』(1901~1903)에서 다윈이 진화의 개념을 체계화했다고 말하면서도, 돌연변이와 같은 돌발적인 방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A. Stoltzfus · K. Cable, “Mendelian-Mutationism: The Forgotten Evolutionary Synthesis”,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47(4), 2014, pp.512-517.

31) 라마르크는 유기체가 특정 기관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점진적인 발달 혹은 퇴화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이정희 역, 『동물철학』,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09, 63면을 참조.

을 사회진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성태와 사카이 도시히코가 혁명 개념의 등재를 위해 크로포트킨과 드 브리스를 각각 끌어왔다면, 박춘우(본명 박진순)는 헤겔의 이론을 끌어와 사회의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大抵 社會는 數量的으로 발전할 시기에는 에보류치이의(進化的)으로 나아가지만, 性質的으로 舊狀態에서 新狀態로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XX的(XX는 혁명: 인용자 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³²⁾

박춘우는 식민지 조선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능통한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하나였다. 대학 졸업 후에 모스크바 소재의 철학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철학강사로 활동했던 그의 이력만 봐도 그러한다³³⁾ 위 인용문에서는 그간 식민지 조선에서 논의된 바 없었던 사유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진화적’인 변화에 그리고 후자를 ‘혁명적’인 변화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 사실 이는 헤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헤겔은 『논리학』에서 “변화된 양적 관계는 限度가 되어 새로운 질, 새로운 어떤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말하면서, 양적인 변화는 점진적인 반면 질적인 변화는 하나의 ‘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⁴⁾ 예컨대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다가 100°C를 넘으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사물은 일정한 한계까지 변화를 겪게 되면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박춘우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지탱

32) 朴春宇, 『世界農民運動의 過去와 現在』, 『개벽』 63호, 1925.11, 16면.

33) 박춘우(박진순)의 이력에 대해서는 권희영, 『고려공산당 이론가 박진순의 생애와 사상』, 『역사비평』 4호, 역사비평사, 1989; 임경석, 『이탈리아어판 〈코민테른인명사전〉에 실린 한국인들』, 『내일을 여는 역사』 76,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9를 참조.

34) 구스타프 A 베테, 강재륜 역, 『변증법적 유물론』, 명문당, 1988, 301-302면.

하고 있는 이러한 헤겔의 사유를 받아들여 사회는 점진적인 진화만이 아니라 돌발적인 혁명을 통해서 변화되고 운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성태, 사카이 도시히코, 박춘우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기존의 진화론적 관점을 쇄신하면서, 혁명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새로운 방략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윈 진화론의 문법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강조했던 그 시기, 이들은 각각 크로포트킨과 드 브리스의 자연과학적 이론,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를 근거로 삼아 인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재구할 수 있는 시간의 절단면이 있다고 믿었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이 생존경쟁으로 점철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들은 진화evolution의 시간 속에 혁명revolution의 시간을 기입하고자 했다. 물론 이들의 관점이 당대 사회주의자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들의 사유는 분명 진화론적 시간관을 갱신하려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단면임에는 틀림없다.

3. 생명과 총동, 혁명적 주체의 재정립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사회 변화의 주요한 방법으로 등재하려는 노력과 함께, 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그들은 조선(인) 스스로를 ‘약자’ 혹은 ‘낙오자’로 규정하려는 1910년대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 혁명과 투쟁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를 호출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자연적이면서 무의식적인 진화가 아닌, 인위적이면서 의식적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본질은 각각의 개체 속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³⁵⁾라고 말했을 때, 또한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과 자신들의 물질적 교류를 발전

시키는 인간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현실과 함께 또한 그들의 사유 및 그 사유의 산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³⁶⁾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 인간의 본질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전면적인 변환을 통해 비로소 바꿀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보여준 인간학과는 다른 노선을 걷는다. 다윈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의미의 생존을 추구하는 개별적 존재이지만,³⁷⁾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³⁸⁾

인간 본질에 관한 마르크스의 해석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제국식민지라는 두 향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약자로 지칭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

35) 칼 마르크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1, 186면.

36) 칼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책, 202면.

37) 다윈이 인간의 사회적 행위 내지는 이타적 도덕관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높은 도덕 기준은 한 개인이나 그의 후손에게 부족 내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약간의 이득을 줄 수도 있고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덕성의 기준이 진보할수록 부족 전체는 다른 부족에 비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높은 수준의 애국심, 충실성, 복종심, 용기, 동정심이 있어서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다.”(찰스 다윈, 김관선 역, 『인간의 유래 1』, 한길사, 2006, 215면)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바, 다윈은 인간의 이타성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대 지식인들은 이타주의의 가능성을 논의했던 다윈의 주장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식민지 조선만의 특수한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서구의 경우 1960년대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존경쟁을 통해 진화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38) 잘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는 이러한 인간을 일컬어 ‘유적 존재(Gattungswesen)’라 명명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칼 마르크스,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 앞의 책, 77-82면을 참조.

었고, 생존경쟁이라는 진화론의 문법에 따라 조선(인)이 멸망하거나 퇴화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다. “優한 者는 勝하고 劣한 者는 敗하며 適한 者는 生存하고 不適한 者는 死滅하난 것이 한 公例”³⁹⁾로 간주되었던 세계에서, 강자로 도약하지 못한 약자는 사멸 혹은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약자가 도태되거나 사멸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이론이 수립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러한 진화론의 문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1910년대의 주요 방략은 바로 自強이었다. “남의 同情업는 것을 설어 하지 안이하고 내의 힘업는 것을 설어하는 것이 현대생활의 특징이요, 남은 엇지 되었던지 내 배나 잘 채우는 것이 현대인류의 도덕”⁴⁰⁾이라는 주장이나 “인간은 생물생존의 법칙을 찌러져서는 결코 생활하기 不能하리니 우리의 是非正邪는 이 법칙을 중심삼아 표시되고 우리의 도덕은 이 법칙에 의지하여 실현되리라.”⁴¹⁾와 같은 도덕률이 꾸준히 강조되었던 이유는, 식민지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물론 신채호와 같이 준비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예외적 목소리도 분명 존재했지만, 사실상 『청춘』이나 『학지광』으로 대표되는 1910년대의 잡지에서는 교육과 식산을 내세운 준비론이 주요한 독립의 방략으로 제시되었다.

1920년대에도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입을 통해 “强者善 弱者惡은 萬古의 鐵案이요 생물의 원칙이라 한다. 인류 다 강이 되면 세계는 균형을得할 것이다.”⁴²⁾와 같은 ‘강력주의’가 여전히 발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약자가 필멸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약자를 새로운

39) 『國家의 競爭力』, 『청춘』 12호, 1917.4. 108면.

40) 玄相允, 「말을 半島靑年의게 붓침」, 『학지광』 4호, 1915.2, 17면.

41) 李相天, 「새 道德論」, 『학지광』 5호, 1915.5, 18면.

42) 朴達成, 「東西文化史上에 現하는 古今의 思想을 一瞥하고」, 『개벽』 제9호, 1921.3, 25면.

저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을 점차 동원하기 시작했다.

“弱者에게는 生命이 업는가. 그리치 아니하다. 弱者일수록 큰 生命을 가지는 것이다. 弱者된 그 自體를 維持하는 生命이 잇슬 뿐 아니라 强者를 먹을 生命이 늘릴 生命이 잡을 生命이 잇는 것이니 이럼으로 弱者의 生命은 强者의 生命보다 一層 偉大하고 더욱 雄渾한 것이다. (...) 今日의 勞働者는 資本家보다 弱하며 小弱民族은 強大民族보다 弱하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生命이 업지 아니하다. 反히 強大民族을, 資本家를 牽制하고 排斥하는 偉大한 生命을 가지고 있다.”⁴³⁾

‘생명’은 청년지식인들이 다이쇼기의 사상적 흐름과 접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이자, 『학지광』이라는 학우회 기관지 내부에서 그 실제적 의미를 체득한 근대어였다.⁴⁴⁾ 생명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베르그송의 ‘생의 악동(élan vital)’ 개념과 이를 민중예술론과 접목시켜 설명했던 오스기 사카에의 생명담론이 두루 참조되었던 바,⁴⁵⁾ 위의 글도 강자에 대한 저항을 곧 생명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오스기의 이론적 선택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약자(약한 민족)는 강자(강한 민족)와 동일한 생명의 무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강자를 견제하고 배척할 수 있기에 한층 더 ‘위대한 생명’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이나 육체적 충동과 같은 생물학적 개념어라기보다는, 강자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수반한 정치적 개념어에 가깝다. 약자의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 투쟁과 배척의 역능을 갖추고 있을 때라야

43) 擎山(김명식), 『조선여자교육협회의 사명』, 『신생활』 6호, 1922.6, 20면.

44) 이에 대한 논의는 이철호, 『1920년대 초기 동인지 문학에 나타난 生命 의식-전영택의 「생명 의 봄」을 위한 서설』, 『한국문학연구』 31호, 2006, 193-224면 참조.

45) 오스기의 생명담론이 구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유병관, 『1910년대 일본이 개인주의와 아나키즘-오스기 사카에와 「근대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0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1, 367-388면을 참조.

비로소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혁파하고 위대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르면 약자는 단순히 직접적인 육체적 욕구에 의거해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도,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법에 따라 소멸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약자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저항의 의지를 가진 창조적 존재이다. 위 글의 필자가 같은 글에서 “弱者가 弱者되는 것은 그 弱者라는 存在를 保有하고 生命을 擴大하여 不正의 强者에게 對抗함에 잇는 것이니, 이 對抗의 彈力이야말로 弱者의 生을 表示하는 唯一한 武器”⁴⁶⁾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던 것도 그 논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와 더불어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통해 약자의 존재론적 지위가 격상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1920년대 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노동은 사회주의자들만이 전유했던 개념은 아니었다. 일찍이 노동이 곧 세계를 움직이는 행위라는 유길준의 규정 이래로,⁴⁷⁾ 1920년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개조주의와 문화주의 흐름에 따라 노동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⁴⁸⁾ 좌우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노동에 대해 특권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노동이 곧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능동적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노동의 가치를 가장 고창했던 잡지는 단연 『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잡지는 표제에 ‘노동(자)’를 활용한 글이 전체의 35%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노동은 산목숨이 죽지 못하니까 엇지할 수 업서 하는 것이 아니오. 필연이나 우연이나 이 우주를 창조하는 존귀한 원천이다.”⁴⁹⁾이라든지 “노동은 사회문

46) 擎山(김명식), 앞의 글, 22면.

47)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 1908, 35-36면.

48) 이에 대해서는 김현주, 『문화』, 소화, 2019, 288-292면;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개념의 성격과 변화』, 『사회와 역사』 99, 한국사회사학회, 2013, 9면을 참조.

49) 霽觀(김한), 『全國勞働者諸君에게 檄을 送하노라』, 『공제』 1호, 1920.9, 48면.

화의 기초적 가치를 有하였다. 그뿐 안이라 창조에 대한 노동과 생산에 대한 환희는 원래 인류의 고유한 天稟性의 본능이다.”⁵⁰⁾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은 능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인간의 역능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렇듯 1920년대에 노동 개념은 좌우 진영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간주 되었는데, 초기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노동의 주체’를 넘어서 강자에 대한 투쟁과 혁명에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주체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우발적 계기가 필요하다.

“충동적 행위 즉 본능적 행위에는 중대한 가치가 있스니 본능에 위대한 창조력을 의미하는 그것이다. 나는 이리 생각한다. 충동적 행위·본능적 행위는 근일에 잇서 총명한 대신에 그마치 優柔不斷한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해독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벨크손의 창조적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 현대사회에 沈滯腐敗한 일절의 頹廢的 風氣를 清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능은 맹목이다. 그럼으로 본능에는 아모 이성적 洗滌이 업고 본능 그대로 표현함에는 多大한 오류를 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는 무위보다는 우량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소년은 驚異를 愛하고 冒險을 好하고 剛勇을 懷하는 본능적 정신을 가졌다.”⁵¹⁾

이 글의 필자는 베르그송의 이론을 활용하여 ‘충동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충동적 행위’는 문맥상 베르그송의 ‘생의 약동’⁵²⁾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의 약동’이 선형적인 진화의 운동성을 비판하고 진화의 우발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충동적 행위’는 혁명적 실천과

50) 鄭泰信, 『眞理의 聖戰』, 『공제』 2호, 1920.10, 3면.

51) 又影生, 『活眼』, 『공제』 2호, 1920.10, 93-94면.

52) 베르그송의 ‘생의 도약(Élan vital)’에 대해서는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144-157면을 참조.

연동될 수 있는 개념어이기도 했다.⁵³⁾ 실제 이 글의 필자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충명한 우유부단함보다는 충동에 의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충동이야말로 바로 사회를 청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본능이 많은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보다는 본능적 충동에 의한 실천적 행위가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충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진화의 흐름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변환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 이렇듯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점진적인 진화의 시간에 예속된 주체, 즉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 사멸해갈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주체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주체 모델을 새롭게 고안하고자 했다. 그러한 주체는 노동을 통해 계급적 각성을 도모하고, 그러한 각성을 통해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생의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라는 불모의 시간 속에서 사멸하고 도태되는 약자가 아니라, 노동과 혁명을 통해서 계급적 각성과 세계의 변혁을 도모하는 존재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들이 말한 ‘위대한 생명’은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의 논리에 따라 도태되는 약자를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정립하기 위해 기획된 용어였다. 심지어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위가 ‘창조적 진화’의 한 과정임을 웅변했던 것도, 약자들이 능동적이면서 우발적으로 혁명과 투쟁의 시간을 주조할 수 있는 주

53) 참고로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설이 다윈의 점진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드 브리스의 홍미로운 실험은 중대한 변이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진화론의 주장이 야기한 가장 큰 어려움을 중 몇 가지를 없애 주었다.”(안리 베르그송, 위의 책, 54면) 한편 베르그송이 내세운 비약적 진화 이론은 프랑스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거나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에게 사회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상우, 『베르그송 읽기』, 세창미디어, 2015, 47-48면.

체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약자는 곧 사멸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죽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과 변혁의 미래를 생성하는 ‘위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4. 상호부조의 논리와 윤리적 진화의 길

1910년대 작가들이 바라본 식민지 조선은 “도덕과 정의는 업고 모다 서로 먹고 서로 죽이는 빗”만이 존재하고,⁵⁴⁾ “서로 속이고, 서로 싸움하자는 부르지짐”이 터져나오며,⁵⁵⁾ 심지어는 “進化論的 모든 條件은 한 秒 동안도 걸이지 안코 進行되겠지! 生存競爭이 잇고 自然淘汰가 잇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대는 ‘무덤’ 같은 곳이었다.⁵⁶⁾ 이러한 표현대로라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은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으로 점철된 진화론의 시공간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약자도태라는 논리에 내포된 비윤리성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강자 중심의 세계질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마냥 파기할 수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0년대 중반부터 ‘동정’이라는 개념어가 진화론에 내포된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맹자의 ‘측은지심’과도 연동되는 동정 개념은 통상적으로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인식된다. 이광수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정이야말로 ‘진화를 가능케 할 문명적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愛敬하는 靑年諸子—여 諸子는 將次 健全한 中流階級—卽 社會의

54) 沈天風, 『酒(술)』, 『매일신보』, 1914.9.12, 1면.

55) 瞬星, 『부르지짐(Cry)』, 『학지광』 12호, 1917.4, 59면.

56) 염상섭, 『萬歲前』, 고려공사, 1924, 146-147면.

主人이 되어 腐敗 墮落한 낡은 空氣를 불어내고 清涼 新鮮한 새 精神을 建設하여 將次 우리 주장할 이 社會에게 善한 意味의 進化를 주어야 할 우리 靑年이니 造次顛沛에 大洋가튼 넓고 기쁜 同情을 가질지어다.⁵⁷⁾

1910년대 동정론을 다룰 때 이광수의 「동정」이라는 문헌은 중요하게 간주되는데,⁵⁸⁾ 위 인용문에서 이광수는 ‘선한 의미의 진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넓고 깊은 동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이라는 논법에 의해 약자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는 식민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에, 약자도 공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이광수는 ‘동정’이라는 감정이 타락한 조선 사회를 청신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더 나은 상태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 민족이 동정심을 가짐으로써 보다 선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광수의 확신은, 동정을 통해 민족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동정’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정 주체의 내면적 성찰에 의해 발양되기 때문이다. 동정을 베푸는 행위는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자발적 의지 내지는 그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동반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강자인 제국과 약자인 식민지라는 두 가지 대립항에 적용할 때에는 어떠한가. 동정이라는 감정이 분명 상호호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감정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동정의 시혜자(주체)와 수혜자(대상)이라는 두 개의 항이 설정된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제국과 식민지는 각각 시혜자

57) 외배(이광수), 「동정」, 『청춘』 3호, 1914.12, 64면.

58) 식민지 시기 동정 담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성연, 「한국 근대문학과 同情의 계보: 이광수에서 『창조』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175-193면;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와 수혜자의 자리에 배속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정을 베푸는 행위는 동정 주체의 내면적 성찰에 의해 발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는 제국의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성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결론적으로 이광수가 말한 동정은 식민지라는 공통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국-식민지로 분할된 세계 질서의 문제를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안이었다.⁵⁹⁾ 그뿐만 아니다. 이광수가 말한 ‘동정을 통한 진화’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정 혹은 협업이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가 희생과 동정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제시했던 “예수, 孔子, 釋迦, 等 諸聖과 린컨 마지니 나이팅겔 等 諸賢”⁶⁰⁾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된 것이 바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었다.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색 중 하나는,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라는 진화론의 핵심 논리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크로포트킨’이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다는 사실이다⁶¹⁾ 물론 현철이나

59) 이와 관련하여 안토니오 프레테는 동정이 작동하는 조건을 ‘공감, ‘유사성’, ‘상상력’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동정은 ① 물리적·정신적 근접성을 토대로 하는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② 타자와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 조건, 즉 동일한 운명에 처해있거나 개인사적 관점에서 비슷한 요소를 가졌다거나 하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③ 타자가 느끼는 고통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동정의 작동 조건은 제국-식민지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식민지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끼리는 공감, 유사성, 상상력이라는 조건이 보다 잘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인)은 식민지(인)와의 물리적·정신적 근접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들과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인)에 대한 동정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정이 작동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프레테, 윤병언 역, 『동정에 대하여』, 책세상, 2019, 202-203면 참조.

60) 외배(이광수), 앞의 글, 59면.

61) 1910년대에도 크로포트킨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었지만, 이는 주로 상호부조론에 대

이돈화와 같은 비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도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두루 참조하곤 했지만,⁶²⁾ 그 이론은 주로 『신생활』, 『공제』, 『아성』 등의 초기 사회주의 잡지의 지면을 통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었다.⁶³⁾ 그만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다윈의 생존경쟁 논리를 쇠신시킬 만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것은 노동자 간의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는 데에도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相互扶助說이 유명하게 되기는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들의 전투하는 무기로써 그것이 非常이 有效한 것이 된 까닭입니다. 빨조아지가 따원을 이용하매 대하여 노동계급에서는 크로포트킨의 相互扶助說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력이 있음으로 그래서 크로포트킨의 학설이 비상이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⁶⁴⁾

한 소개보다는 『크로포트킨 자서전』이나 『빵의 쟁취』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호부조론에 대한 소개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1920년대 초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62) 曉鍾(현철), 『모름이 美로부터』, 『개벽』 17호, 1921.11, 124면; 李敦化, 『吾人의 新死生觀, 意識과 死生=生命과 死生=靈魂과 死生』, 『개벽』 20호, 1922.2, 30-31면.
- 63) 이들 잡지에서 크로포트킨은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오스기 사카에의 『크로포트킨 연구』(1920)를 발췌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자영의 『상호부조론』(『아성』 3호, 1921.7, 15-21면)을 필두로, 이성태가 번역한 『適者의 生存』(『신생활』 3호, 1922.4, 32-35면.)과 『크로포트킨 學說研究』(『신생활』 7호, 1922.7, 28-37면)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공제』에 실린 유진희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적 고찰』이나 제관의 『國家의 理性及 政策과 眞理의 反抗』(『공제』 2호, 1920.10, 27면)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새로운 시대의 이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그 영향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略하도록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의 저작이 번역·소개되었던 양상은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김성국, 『한국의 아나키스트: 자유와 해방의 전사』, 이학사, 2007;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일본사학회, 2012, 127-157면;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171-206면 등을 참조.
- 64) 사카이 도시히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立地, 社會主義學說 大要(其二): 階級鬭爭과 進化論續』, 『개벽』 41호, 1923.11, 43면.

사카이는 다윈의 진화론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병치시키면서 전자를 부르주아의 이론으로, 후자를 노동계급의 이론으로 규정한다. 그의 말처럼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다윈의 이론은 강자와 부자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이론이었던 반면, 크로포트킨의 이론은 노동계급 간의 연대와 협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개조의 물결에 힘입어 생존경쟁의 논리는 꾸준히 비판되고 있었지만,⁶⁵⁾ 1920년대 들어서서 다윈은 계급적 연대와 협동을 부정하는 부르주아의 이론가로 폄훼되기에 이른다. 위에 제시된 사카이의 언급은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례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당시 다윈은 공공연하게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다. 이를테면 다윈의 생존경쟁 논리가 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거나,⁶⁶⁾ 다윈이 폭력과 약탈과 침략을 조장하는 학문을 발전시켜 도덕문명을 퇴보시켰다고 비난한 데에서 알 수 있듯,⁶⁷⁾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다윈의 이론은 대체로 ‘생존’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절멸’에 관한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인류애의 과학’으로, 상호부조는 제도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의해 작동

65)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인식론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187-227면; 오문석, 「1차대전 이후 개조론의 문학적 의미」, 『인문학연구』 46,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3, 299-323면; 백지운, 「문명의 전환과 세계의 개조」, 『동방학지』 17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2016, 135-159면 등을 참조.

66) “전쟁은 광의로 해석하면 天(다윈)의 생존경쟁도 물론 전쟁의 一形式이다. 아니라 이것이 전쟁의 근본이며 전쟁의 전부이다.” - 擎山(김명식), 『전쟁철학의 비판』, 『신생활』 8호, 1922.7, 43-44면.

67) “十七八世紀로부터 西洋에 霍布士(홉스), 達爾文(다윈), 康德(칸트) 諸氏의 學이 鼓吹活躍하여 物競天擇이라니 ‘強食弱肉’이라 ‘優勝劣敗’라는 思潮가 二十世紀 世界的 活劇舞臺를 作하여 國際政策도 社會風紀도 個人心理도 橫暴, 掠奪, 侵略의 主義로 強國은 弱國을 併呑하며 大會社는 小會社를 蠶食하며 富人은 貧人의 膏血을 吮食하여 裏面의 道德文明은 時日로 退步되고” - 金廣植, 『세계개조와 노동문제』, 『공제』 2호, 1920.10, 58면. 괄호 안은 인용자 주.

되는 행위 원칙으로 이해했다.⁶⁸⁾ 그들이 이렇게 크로포트킨의 입장에 매료되었던 이유는, 상호부조론이 다윈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사례를 근거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협동과 단결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이론이었기 때문이었다.

“개암이(蟻)의 棲巢를 取하여 그 生活狀態를 見하면 만흔 著書에 記載된 事實, 一植物的 運搬, 住居의 建築, 子孫의 養成, ‘蛾 蟲의 飼養, 其他 萬般의 事實이 하나도 他的 命令에 依賴함이 업시 任意的 相互扶助의 原例下에서 行하는도다. 그뿐 아니라 蟻의 多數한 種類 中에는 各個의 蟻는 互相間에 食物을 分配치 아니치 못하는 事實이 그 社會의 最히 重要한 義務가 되엇도다.”⁶⁹⁾

위의 글은 개미(蟻)의 생태에 관한 크로포트킨의 입장을 발췌 정리한 부분으로, 이에 따르면 개미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특히 개미들은 자신의 식물(食物)을 전유하지 않고 타 개체와 분배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 이 글에서 우리는 상호부조가 자발적으로 작동되는 ‘본능’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유가 아니라 공유와 분배를 통해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관찰된 사실을 근거로 한 과학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개미와 벌의 군집 생활은 공유와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탱하

68) “이제이다. 人類는 喪失되었던 正路 中에 幾人의 사람스러운 先驅를 發見하였다. ‘크로포트킨’은 豪奢한 貴族家에 生長하였으나 幼時부터 眞正한 愛의 曙光이 發芽하였으며 後年에 漂浪한 悲慘生活 中에도 互相扶助論을 發表하여 完美한 人類愛의 科學을 創造한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말하되 “사람의 生存코자 하는 努力은 소위 生存競爭에 依하여 達成되는 것이 아니요, 互相扶助의 本能에 依하여 達成한다”고 絶叫하였다.” - 兪鑣熙, 『勞動運動의 社會主義的 考察』, 『공제』 2호(1920.10), 19면, 강조와 밑줄은 인용자.

69) 尹滋瑛, 『相互扶助論(續)』, 『아성』 4호, 1921.10, 27면.

는 증례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자주 거론되는 생물학적 근거이기도 했다. 이성태가 『크로포트킨學說研究』에서 벌과 개미의 군집생활이 갖는 이점에 대해 언급한 경우나, 신백우가 『蟻의蜂의 互相扶助』에서 벌과 개미의 생태에 대한 관찰 이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도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⁷⁰⁾

다윈의 진화론은 주로 개체 생활을 하는 생물의 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크로포트킨은 집단 및 사회 생활을 하는 생물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다윈의 진화론을 부르주아의 이론으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노동자의 이론으로 규정하였다. 상호부조론은 약자 도태를 통해 사회가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인식론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왔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크로포트킨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벌과 개미가 그러했던 것처럼, 공동노동을 통한 협동과 부조가 오히려 집단과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경쟁보다는 공존을 강조하는 이 논리는 계급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 두루 활용했을 뿐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이 갖고 있었던 윤리적 한계를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크로포트킨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에게 윤리적 진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사해주었던 것이다

5. 나가기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진화론은 역사의 진보를 보증해주는 담론적 기제로 인식되었다. 다윈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⁷¹⁾ 지

70) 특히 신백우는 공동생산과 상호부조로 이루어진 벌과 개미의 군집생활을 “정직한 노동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노동자의 공동생산과 협동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晁夫(신백우), 『蟻의蜂의 互相扶助』, 『공제』 7호, 1921.7, 44-47면.

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항구적으로 진화한다는 다윈의 테제는 진보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히나 다윈의 진화론은 식민지 조선의 더 나은 미래를 투사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조선은 진보와 퇴보라는 간명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반드시 진보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부국과 독립에의 꿈을 성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이 가진 한계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노정되고 있었다. 인류 역사가 진보할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과는 달리, 세계 질서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구도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고 심지어 세계는 강대국의 야욕이 범람하고 살육이 자행되는 각축장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그 이후부터 조선 사회에 급격하게 유입된 사회주의 이념은 다윈 진화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촉진시켰다.

먼저 이들은 진보의 과정 속에서 ‘혁명의 시간’을 새롭게 배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윈이 말한 진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의미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기에, 혁명이라는 일종의 단절점 내지는 변곡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윈식 진화론을 넘어서는 이론적 자원이 동원되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 개념이나 헤켈의 양질 변화와 같은 새로운 담론들이 소개되었다. 이리하여 인류 역사는 일직선으로 발전해온 것도, 누적적이고 정량화된 방식으로 진보해온 것도 아니라는 주장들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혁명적 사건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 이론을 새롭게 마련해야만 했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약자’라는 자기인식에 고착되어 있다면 혁명적 의식은 고양

71) 다윈의 진화론은 스펜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윈은 최근의 종이 과거의 종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는 입장이 크게 다르며, 다윈 스스로도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이 인류사회 및 역사에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82-85면을 참조.

될 수 없다. 따라서 1910년대에 활용되었던 ‘생명’ 개념을 ‘강자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본능적이고 창조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주체를 상상했던 것이다. 심지어 계급투쟁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운동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의미의 혁명 개념과도 쉽게 조응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在하여 약육강식을 천연공례로 認하던 강자들도 맞춤내 枉하고 屈하여 정의 인도를 주장치 아니치 못하는 20세기의 活舞臺이다.”⁷²⁾라는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듯, 1920년대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진화론이 가졌던 윤리적 문제를 갱신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주어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었고, 그 입론에 제시된 생물학적 사례는 다윈 진화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특히 상호부조의 본능을 강조함으로써 인류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연대하고 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72) 革菴生, 『覺醒하라 新思想을』, 『신생활』 1호, 1922.3, 41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개벽』, 『공제』, 『신생활』, 『아성』, 『동아일보』 등

2. 논저

-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 고토쿠 슈스이, 임경화 편역, 『인류와 생존경쟁』, 『나는 사회주의자다』, 교양인, 2011.
- 구스타프 A 베테, 강재륜 역, 『변증법적 유물론』, 명문당, 1988.
-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권희영, 『고려공산당 이론가 박진순의 생애와 사상』, 『역사비평』 4호, 역사비평사, 1989.
- 공위즈 외, 조경희 역, 『마오의 독서생활』, 글항아리, 2011.
-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 김현주, 『문화』, 소화, 2019, 288-292면;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개념의 성격과 변화』, 『사회와』
- 김성연, 『한국 근대문화와 同情의 계보: 이광수에서 『창조』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김성국, 『한국의 아나키스트: 자유와 해방의 전사』, 이학사, 2007.
- 역사』 99, 한국사회사학회, 2013
- 마쓰모토 겐이치, 정신태·오석철 역, 『기타 잇키』, 교양인, 2010.
-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일본사학회, 2012.
- 박종린,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 현실』 67, 한국역사연구회, 2008.
- 백지운, 『문명의 전환과 세계의 개조』, 『동방학지』 17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 안토니오 네그리, 정남역 역, 『혁명의 시간』, 갈무리, 2004.
- 안토니오 프레테, 윤병언 역, 『동정에 대하여』. 책세상, 2019, 202-203면
-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 오문석, 『1차대전 이후 개조론의 문학사적 의미』, 『인문학연구』 46,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3.
- 오스기 사카에, 김응교·윤영수 역, 『오스기 사카에 자서전』, 실천문학사, 2005.
-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유병관, 『1910년대 일본이 개인주의와 아나키즘-오스기 사카에와 『근대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0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1.
- 이경룡, 『192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분화과정 - 조선노동공제회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8, 한국중앙사학회, 1995.
- 이만영,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1910~20년대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8.
- 이철호, 『1920년대 초기 동인지 문학에 나타난 生命 의식-전영택의 『생명의 봄』을 위한 서설』, 『한국문학연구』 31호, 2006.
-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 일로나 예르거, 오지원 역, 『두 사람: 마르크스와 다윈의 저녁식사』, 갈라파고스, 2018.
- 임경석, 『이탈리아어판 <코민테른인명사전>에 실린 한국인들(1)』, 『내일을 여는 역사』 76,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9.
-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집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문학의 논리』, 2009.
-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 천두슈, 심혜영 역, 『천두슈 사상선집』, 산지니, 2017.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6』, 박종철출판사, 1991.
- 프랜시스 윈, 정영목 역, 『마르크스 평전』, 2001.
- 한상우, 『베르그송 읽기』, 세창미디어, 2015.
- A. Stoltzfus · K. Cable, "Mendelian-Mutationism: The Forgotten Evolutionary Synthesis",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47(4), 2014

<Abstract>

Discourse on socialist critique and cognition of the evolutionary theory in the early 1920s

Lee, Man-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1920s aspects, especially discourse on socialist critique, of critical acceptance of the evolutionary theory. The socialism that emphasizes class solidarity and the evolutionary theory that emphasizes the struggle for existence cannot seem to coexist, but socialists in colonial Chosun in the 1920s, looked the theory of evolution up continuously. Furthermore, they not only also referred to evolutionary theory but criticized and renewed it simultaneously.

Based on the perspective above, this paper examines three points roughly. First, the early socialists presented the concept of ‘revolution’ as a new way to create social change, on the contrary, at that time, the evolutionary theory stressed gradual social change. In this process, the concept of ‘mutation’-a natural science concept of Hugo de Vries- and Hegel’s philosophy arose in colonial Chosun’s discussion. Second, the early socialists argued that dynamic individuals could escape the 1910s’ customs, which labeled them as ‘the weak’ or ‘loser,’ through labor. In this progress, they published the two notions, which are called ‘life’ and ‘impulse.’ Also, they elucidated that a revolution could break out by creative and accidental will. Last, the early socialists adapted and renewed the term ‘sympathy,’ also aggressively referred to in Kropotkin’s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Based on this, they not only

pointed out that ‘natural selection’ and ‘the struggle for existence,’ the core of the evolutionary theory, had ethical defects but also emphasized laborers' solidarity and cooperation can bring evolution and survival.

Key words: evolutionary theory, socialism, Darwin, Marx, revolution, labor, Kropotkin, progress

투 고 일 : 2020년 5월 31일

심 사 일 : 2020년 6월 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